

30도 늦더위도 거뜰...손색없는 김신영의 '전국노래자랑'

34년간 이끈 송해 후임 MC...하남시편 현장 공개 양희은과 듀엣 울컥...절친 송은이·이계인 등 응원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날 일요일의 막내 딸 김신영입니다."

지난 17일 경기 하남 미사경정공원 광장에는 '둘째이모 김다비'의 '오르자'가 울려 퍼졌다. 바로 개그우먼 김신영(39)의 곡이다. 흥겨운 노래와 함께 KBS 1TV '전국노래자랑' 새 시작을 알렸다.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MC 송해(송복희·1927~2022)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무대도 악단도 관객도 그대로였다.

가수 양희은이 '참 좋다'를 부르며 무대를 열었다.

양희은은 이날 다른 스케줄이 있었지만 조율하고, 절친한 후배 김신영을 응원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다. "가수 시작한지 52년 됐는데, 전국노래자랑 첫 출연"이라며 "새 출발을 응원하면서 새로운 MC 김신영을 소개합니다"라고 외쳤다. 김신영은 양희은과 함께 '행복의 나라'를 불렀다. 감정이 벅차 오르는 듯 눈물을 훔치곤 했다. 양희은은 "얼마나 떨리겠느냐. 누구나 초보일 때가 있다. 함께 커갈 어린 짝이라고 생각하고 보듬어 달라"면서 "신영이도 욕심 내려놓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제가 '찐찐보'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힘들 때 불렀던 노래를 첫 방송에서 불러서 감정이 벅차 오르네요. 안영하세요. 전국 방방

곡곡에서 만날 일요일의 막내 딸 김신영입니다. 앞으로 자라날 새싹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자양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제가 '전국노래자랑'이라고 외치며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실로폰 소리와 함께 하남 시민들은 '노래자랑'을 외쳤다. 김신영은 "큰절 한번 올리겠다"며 바닥에 넋죽 엎드렸다. "오늘 비가 올 확률이 70%였는데 하늘이 도와줬다"며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4수생인 여성 참가자가 듀오 '노라조'의 '사이다'를 부르며 경연이 시작됐다. 김신영은 세번째 참가자인 '거신' 온라인 마케팅부 직원 3명과 중점모를 함께 쓰고 마크론슨의 '업타운 펑크'에 맞춰 춤을 췄다. "오랜만에 대낮에 춤추다 보니 관절이 안 돌아간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를 때도 옆에서 쉬지 않고 박수를 치고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졌지만, 2시간이 넘는 야외녹화에도 힘든 기색은 전혀 없었다.

김신영 절친들의 특별 무대도 재미를 더했다. 김신영은 "전국노래자랑 한다니까 특별히 지인들이 '참가하고 싶다'고 하더라"면서 "그래도 '공은 공, 사는 사'. 공사 구분 잘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땀을 칠 것"이라

고 했다. 개그우먼 선배이자 소속사 미디어 랩시소 대표인 송은이가 가장 먼저 등장했다. 현숙의 '정말로'를 맛깔나게 불러 '딩동땡'을 받았다.

송은이는 김신영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후배님이 이렇게 큰 프로그램에 우뚝 서어서 가문의 영광이다. 전국 팔도 돌아다닐 때 당 떨어지면 안 돼 사랑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해도 전국노래자랑에 나올 기회가 흔치 않다. 30년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다음에도 불러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송은이는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모창을 했고, 신재호 악단장은 자연스럽게 반주를 맡겼다. 신 악단장은 생전 송해와 오랜 시간 전국노래자랑을 함께 한 만큼, 찰떡 호흡을 자랑했다.

송은이는 윤복희 '여러분'을 부르며 김신영을 응원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여~ 나는 나는 너의 기쁨이여~". "우리 신영이가 앞으로 전국노래자랑 (MC로) 백수(白壽) 누리도록 사랑해주기 바란다"며 "최고의 악단, 최고의 MC 만수(萬壽), 백수 누리십시오"라고 했다.

이 외에도 랠런트 이계인, 가수 나비, 트로트 가수 박서진 등이 무대를 꾸몄다. 특히 박서진은 김신영의 부캐인 다비이모 복장으로 등장. 장구 공연과 함께 '주라 주라'를 선보였다. 트로트 가수 박현빈과 그룹 '브레이브걸스', 가수 에일리의 축하무대도 이어졌다. MC도 게스트 가수도 한층 젊어진 듯한 느낌을 줬다. 특히 남매듀오 '악뮤'의 이찬혁은 관객석에 자리, 응원해 시선을 끌었다. 이런



제 하남시장도 전국노래자랑 2막을 축하했다.

전국노래자랑은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1950년대 라디오 노래자랑을 거쳐 1980년 11월9일 정규 편성됐다. 초대 MC 이한필을 시작으로 MC 이상용, 아나운서 고희수·최선규 등이 거쳐갔다. 송해는 198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34년간 진행, 세계 최고령 MC로 영국 기네스에 등재됐다. 김신영은 송해 후임으로 발탁, 다음달 16일 오후 12시 10분 하남시 편을 시작으로 전국노래자랑 MC 첫발을 내딛을 예정이다. 지난 3일 김신영 고향인 대구의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

악당에서 첫 녹화를 마쳤지만, 하남시 편이 먼저 전파를 타게 됐다.

"할머니 어게 뒤에서 (전국노래자랑을) 보고,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나왔는데 MC를 맡게 돼 영광입니다. 거북이처럼 천천히, 오래오래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국민을 사랑하는 송해 선생님의 마음을 가장 닮고 싶죠. 전국노래자랑은 42년된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에 베고 무언가를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그 나무 옆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나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키 높이가 맞아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신하균, 아내의 죽음 뒤 공허한 삶 그려...티빙오리지널 '온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온더' 신하균이 색다른 멜로를 그린다. 10월 14일 첫 공개되는 '온더'(연출 이준익, 극본 김정훈·오승현) 죽어 아내를 잃고 홀로

다음달 14일 첫 공개

남겨진 '재현'으로 변신한 신하균의 스틸컷을 20일 공개했다. 다양한 감정 변수를 선보일 신하균의 열연이 기대를 모은다.

'온더'는 세상을 떠난 아내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남자가 그녀를 만날 수 있는 미지의 공간 '온더'에 초대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죽은 자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세계 '온더'를 마주한 다양한 군상을 통해 삶과 죽음, 영원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거장 이준익 감독의 첫 번째 휴먼 멜로다. 여기에 신하균·한지민·이정은·정진영이 의기투합했다. 공개된 사진 속 재현(신하균)은 아내 이후(한지민)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 이후와 이별을 준비해온 재현의 답답한 표정

너머 그녀의 얼굴을 눈에 담은 눈빛이 애뜻함을 자아낸다. 하지만 둘에서 하나가 된 일상의 변화를 느끼기도 전, 재현의 아침을 깨운 건 이 후가 보낸 메시지다.

재현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질, 아내 이후가 있는 그곳 '온더'로 향한다.

신하균은 '온더'에 대해 "죽음에 대한 색다른 해석이 굉장히 새로웠다. 이준익 감독님을 통해 어떻게 구현될지 상당히 궁금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캐릭터에 대해서는 "액션보다는 리액션이 추가 되고 객관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고 연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온더'는 티빙과 파라마운트+의 첫 번째 공동투자작으로 글로벌 K-콘텐츠 센세이션이 기대되는 가운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도 선정됐다.

뷔 "내 행동 후회 안해...인연 소중히 여겨"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인터뷰를 통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냈다.

지난 19일 패션 잡지 '보그코리아'를 통해 뷔의 10월호 화보와 인터뷰가 공개됐다.

방탄소년단 뷔는 다양한 소품과 스타일링을 통해 온전히 자신만의 매력을 드러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살다 보면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고, 또 최고의 자리에 있기에 발생하는 일도 많은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편이라는 질문에 뷔는 "여유로워 보여도 솔직히 여유롭지는 않다. 그런 척할 뿐이다. 대신 생각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비록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 생각이 최선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행동한다. 부담감도 없지 않지만, 제 행동을 후회하지

는 않는다. 저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쉽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치고 힘들 때도 우리 아미, 방탄소년단 멤버들, 가족, 친구들 덕분에 저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연이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물음에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편"이라고 말했다. 뷔는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아티스트분들과 감독님, 작가님, 기자님까지 전부 소중하다"며 "예전에 저를 너무 위로만, 단지 인맥으로만 보는 데서 상처를 받아 낮을 가리기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사람이 좋다.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진솔하게 대답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 개인 활동에 대해 뷔는 "우리는 서로를 정말 많이 응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에 슈가 형 집에서 멤버들이 각자 만든 개인 곡을 다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누군가 춤을 추고 다들 '좋다, 좋다' 난리도 아니었다"며 "이렇게 멤버들이 새로운 자기 색깔의 음악을 준비해서 그런지 엄청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음악을 만들고 서로 사랑하고 있어서 보기 좋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끝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방탄소년단 멤버로서 가져야 했던 부담감에 대해서는 "아미분들이 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짐을 좀 덜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솔로 활동병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뷔는 K팝 관련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와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강혜원 "첫 OTT 걱정, 아이즈원 멤버들이 조언해줘"

웨이브 드라마 '청춘블라썸' 오늘 첫선

그룹 '아이즈원' 출신 강혜원이 청춘 로맨스를 그린다.

강혜원은 20일 웨이브 드라마 '청춘블라썸' 제작위원회에서 "웹툰을 많이 봐서 원작을 알고 있었다. 이 역할을 맡게 된 뒤 다시 봤다. 남을 배려하고 밝고 긍정적인 캐릭터"라며 "난 마냥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했다. 첫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작품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줬다"고 털어냈다.

"아이즈원 멤버들은 '언니가 그거 해요?' '그

웹툰 좋아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면서 "연기하는 친구도 있어서 조언도 많이 해주었다"며 고마워했다. 이 드라마는 저마다의 비밀을 간직한 열여덟의 로맨스다.

강혜원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보미'를, 김민규는 서연과 최고 인기남 '재민'을 맡는다.

김민규는 "재민은 '얼굴 천재'인데, 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수식어가 부당스럽지만 감사하다"며 "재민이는 '인사'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두루 잘 지낸 점은 닮은 것 같다"고 설



명했다. 21일 오후 5시 첫 공개.

킹덤, 첫 오프라인 쇼케이스... "전세계 킹메이커와 만난다"



그룹 킹덤이 첫 오프라인 팬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20일 소속사 GF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킹덤이 내달 5일 오후 8시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미니 5집 발매 기념 팬 쇼케이스를 열어 팬들을 만난다.

소속사 관계자는 "킹덤이 데뷔한 후 처음 열리는 오프라인 팬 쇼케이스인 만큼, 더 풍성하고 스페셜한 무대를 선보일 것을 약속한다"며

많은 기대를 당부했다.

이번 공연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돼 전 세계의 킹메이커(팬덤명)가 이번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킹덤은 미니 5집 '히스토리 오브 킹덤 : 파트 5. 루이(History Of Kingdom : Part V. Louis)'를 내달 5일 오후 6시 발매해 컴백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뉴시스

줄리아 로버츠·조지 클루니 '로맨틱코미디'

배우 줄리아 로버츠와 조지 클루니가 주연한 로맨스 영화 '티켓 투 파라다이스'가 다음 달 국내 개봉한다.

유니버설픽처스는 '티켓 투 파라다이스'가 다음 달 12일 개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작품은 한 때 사랑했지만, 지금은 원수 같은 존재가 돼 이혼한 '조지아'와 '데이비드'가 딸의 결혼을 막기 위해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코미디다. 로버츠가 조지아를, 클루니가 데이비드를 연기했다. 이미 호주·독일·스페인·브라질 등에서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있다. 연출은 '맘마미아!2'를 만들 을 피커 감독이 맡았다.